

# 한국과 일본 여객선과 화물선 안전기준 강화키로

## 제10차 한·일 선박안전실무협의회에서 합의

한국과 일본은 양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의 안전기준을 국제협약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11월15일 목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선박안전실무협의회에서 양국간 항로에 투입될 신조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구명설비 비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협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양국간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일간을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기준은 양국간 운항 항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설비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약간 낮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입항 24시간 전에 선박보험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양국간의 운항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일본측에 제안했다. 이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00여척의 우리나라 화물선이 보고시간을 지키기 위해 입항 대기하거나 출항시간을 늦추어야 하는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항만국통제시 한국선박에 대한 유연한 점검을 요청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해당부서에 전달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건조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등 조선 및 해운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내외 대기업 컨테이너 보안시장 선점경쟁 치열

국내외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블루오션'으로 등장한 컨테이너 보안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해운·항만업계와 해양수산개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보안장비 사업을 둘러싼 시장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미국의 항만 보안법(SAFE Port Act) 채택 등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무선인식(RFID)을 핵심으로 하는 컨테이너 보안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 그룹과 GE 연합체이다.

록히드의 자회사인 사비 네트워크는 최근 미국의 버지니아 항만당국과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으며,GE는 자사 시스템인 '컴머스가드'의 해외 판매망을 확장하는 등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미국의 GE가 설립한 컴머스가드의 지분 10%를 1천500만달러를 들여 인수, '컴머스가드'의 아시아 12개국 판매권을 확보했다.

삼성 측은 "보안사업은 이제 국제적인 메가 트렌드이며, 향후 시장규모가 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GE가 삼성을 끌어 들여 컨테이너 보안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사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향후 대응도 관심을 끌고 있다.